

2013.09.27

# 주간

##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 Contents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베트남 진출 삼성전자 수출, 작년보다 2 배 증가
- ▶ 기업은행 하노이지점 개설 인가취득...내달말 영업개시
- ▶ 서울대 의대, 베트남서 현지 의학교육과정 개발
- ▶ 롯데센터 하노이 랜드마크 우뚝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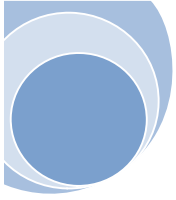
- ▶ 베트남, 8 개월만에 올해 FDI 유치 목표 달성
- ▶ 베트남 투자중인 일본계 기업의 약 60%가 투자 확대 의향
- ▶ 쩡닌 성에 미국 기업 40 억 달러 규모의 카지노 건설 계획
- ▶ 동나이에서 시세이도 두 번째 공장 건설
- ▶ 외국 인테리어 가구 기업들 대규모로 베트남 시장 점유해

### ◆ 베트남기업 동향

- ▶ 베트남항공, 내달 28 일부터 한국노선 항공편 증편
- ▶ 한국 취항 추진 베트남 비엣젯, 항공기 62 대 구매
- ▶ PVFC 와 Western Bank, PVcomBank 로 합병 통합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하노이시 끼우저이에 '정보기술 특구' 지정 다양한 혜택
- ▶ 베트남, 신용카드 시장 성장 가능성 무한
- ▶ 빈펄-하이장 관광지 프로젝트 착공
- ▶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려면 반드시 각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허락 받아야 해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베트남 진출 삼성전자 수출, 작년보다 2 배 증가  
1~9 월 약 170 억 달러..."연말 220 억~230 억 弗 전망"**

-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의 올해 휴대전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법인(SEV)은 9 월 휴대전화 단말기 수출실적이 약 18 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 일 밝힘
- 이는 전월분 실적(25 억 달러)보다 약 25% 감소한 것으로 신제품 출시를 앞둔 시점에 통상 나타나는 일시적 둔화현상이라고 삼성전자는 분석함
- 이에 따라 올 들어 9 월까지 SEV 의 수출 실적은 약 170 억 달러로 작년 동기 85 억 5 천만 달러의 2 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됨
- SEV 의 휴대전화 수출은 올해 중순 베트남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부문을 추월한 데 이어 향후에도 비중을 크게 높여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 이에 앞서 SEV 는 올들어 지난 8 월까지 모두 152 억 달러 어치를 수출, 베트남 전체수출 848 억 달러의 약 18%를 차지한 바 있음
- SEV 는 지난해에도 124 억 달러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수출, 베트남 전체 수출실적의 11%선을 차지하며 베트남의 만년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업계 관측통은 휴대전화 성수기가 4 분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로 220 억~230 억 달러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북부 박녕성 옌퐁공단에 위치한 SEV 의 제 1 공장은 연산 1 억 2 천만대로 현재 100% 가동되고 있음
- 삼성전자는 특히 내년 3 월 완공을 목표로 인접 타아이웁웁 성에 같은 규모의 제 2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휴대전화 수출은 한층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업계는 타이웁웁성 공장이 완공되면 SEV 생산능력이 연산 2 억 4 천만대로 증가, SEV 의 수출 비중이 기존의 2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09.27

### 기업은행 하노이지점 개설 인가취득...내달말 영업개시

- 기업은행이 최근 하노이지점 개설 인가를 받아 내달말 본격적인 영업에 나섬. 기업은행 하노이사무소는 23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하노이지점 개설을 위한 본인가를 받았다고 밝힘
- 이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국내외 은행의 신규 인가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베트남 양대 도시인 수도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에 모두 지점을 확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됨
- 기업은행 하노이지점은 한국인 4명과 현지 직원 15명 등 모두 19명으로 우선 출범한 뒤 점진적으로 직원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임
- 하노이지점은 신홍 번화가인 끼우저이의 경남 랜드마크 72 빌딩의 12층에 들어서며 오는 10월 28일부터 영업을 시작함
- 하노이사무소 관계자는 지점 개설을 계기로 베트남 지역에 실질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한층 더 나은 조건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함
- 하노이지점은 오는 11월 6일 개점 행사를 열 계획임.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호찌민 출장소를 개설, 개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09.23

### 서울대 의대, 베트남서 현지 의학교육과정 개발

- 서울대 의과대학(학장 강대회)이 26일과 27일 양일간 베트남 의학교육과정 개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개발센터 현지 설립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이종구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들을 호찌민의약대학, 175 병원에 파견함
- 이는 지난 7월 23일 서울대 의대-호찌민의약대학, 175 병원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임



## 대한상공회의소

- 세 기관은 당시 ‘베트남 의학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통한 현지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서울대 의대 학생 및 대학원생의 국내에 없는 열대성 감염질환의 현지 경험을 위한 항시적 과건 교육 기반 구축’을 약속한 바 있음
  - 26 일에는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강화 전략을 위한 학회발표가 열리며, 27 일에는 소아심장외과(김웅한 교수), 성형외과(김석화 교수), 방사선종양학과(엄근용 교수), 영상의학(이재영 교수) 등 국내 전문가 팀과 호치민의약대학 및 175 병원 관계자들과의 과별 현황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임
  - 이 자리에서는 현지 보건의료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핵심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세부별 지원 전략이 수립될 전망이다
- \* 출처: unn.net, 09.26

### 롯데센터 하노이 랜드마크 우뚝

- 롯데건설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중심가에 지하 5 층~지상 65 층의 초대형 건축물 ‘롯데센터 하노이’(사진)를 건설하고 있음
- 이 센터는 하노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로 연면적이 여의도 63 빌딩의 약 1.5 배인 25 만㎡에 달함
- 롯데센터 하노이는 각국 대사관과 외국인 학교 등이 모여 있는 중심가에서 웅장한 외관을 뽐내고 있어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음
- 지난 7 월 상량식에는 응웬 티 도안 부주석이 참석해 직접 축사를 했다. 외관도 아름다움
-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형상화해 우아한 곡선미와 고급스러운 푸른색을 띄고 있음
- 특히 이 센터는 하노이에 세워지는 첫 지하 5 층 구조물이다. 베트남은 연약지반이라 지하 2 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않음
- 지하 5 층까지 건설하기 위해 롯데건설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10 여명의 연구진을 현장에 보냈다. 타설 공사 1 주일 전부터 현지 시멘트 공장에서 수차례 테스트한 후 작업을 진행함



○ 현재 롯데건설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내년 6월 롯데센터 하노이를 성공적으로 완공해 해외 초고층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임

\* 출처: kukinews.com, 09.26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베트남, 8개월만에 올해 FDI 유치 목표 달성

1~8월 144억 弗 유치...작년 동기비 19.5% ↑

○ 베트남이 불과 8개월 만에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하노이타임스와 사이공이코노믹타임스 등은 베트남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44억 달러의 FDI(신규 유치 기준)를 유치했다고 25일 보도함

○ 이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19.5%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베트남 정부의 신규 유치목표 13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임

○ 특히 9월분 실적을 포함하면 FDI 유치 실적은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들 매체는 내다봄

○ 그러나 베트남의 투자환경이 주변지역 국가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 이들은 베트남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데다 관련 행정절차 역시 개선되지 않았으며 투자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베트남은 FDI 유치와 관련해 첨단기술 중심의 프로젝트를 우대하는 등 선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부이 팡 빙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최근 첨단기술과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친환경 투자 프로젝트를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출처: yonhapnews, 09.25



**베트남 투자중인 일본계 기업의 약 60%가 투자 확대 의향**

- 베트남 부동산 메거진 및 호치민시 기업 협의회는 지난 19 일 일본 무역 진흥기구(JETRO)와 공동으로 '일본의 대 베트남 신규 투자 촉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함
- 호치민시 기업 협의회 팜응옥흥(Pham Ngoc Hung)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올 상반기 동안 베트남 투자액은 약 40 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힘
- 또한, 일본의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 할 전망이며, 베트남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들의 약 66%가 향후 1~2 년내에 투자를 확대 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 그러나 베트남의 인건비는 ASEAN 국가의 평균보다 높고, 산업 분야의 부품 및 원자재 현지 조달율도 약 27.9%로 중국(60.8%)과 태국(52.9%)에 비해 크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투자 유치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함
- 회의에서 향후 일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베트남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프라의 정비, 투자 허가 절차의 간소화, 세제 개선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됨

\* 출처: sggp.org.vn, 09.19

**꽝닌 성에 미국 기업 40 억 달러 규모의 카지노 건설 계획**

- 9 월 중으로 꽝닌(Quang Ninh)성과 미국의 ISC 기업은 번돈(Van Don) 경제지구에 건설할 카지노 기획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을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9 월 둘째 주 ISC 기업과 뚜언쩌우(Tuan Chau) 기업은 꽝닌 성 지도부와 번돈 투자 기회에 대해 회의를 가짐
- 잭 마어(Jack Maher) ISC 기업 회장 에 따르면, ISC 는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에서 번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연구하고 조사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총 40 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번돈 지역에 카지노, 쇼핑센터, 국제회의장과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함



## 대한상공회의소

- 팡닌 성 투자 지원 및 진흥 위원회 지도부는 미국 파트너의 40억 달러 투자 계획 보고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양측은 초기 단계의 논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번돈 경제지구 반인(Van Yen) 마을에 건설될 종합 카지노 유원지 계획은 4~50억 달러 규모로 2013~2015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팡닌 성 투자계획 30개 중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건설면적은 1,800헥타르임
- 계획에 따르면, 2013년 중으로 팡닌 성은 투자자 선택, 심사와 투자증명서 발급 등의 준비 과정을 전개하고 2015년에 제 1단계 계획을 실현하고, 2019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음
- 팡닌 성에 따르면, 투자자는 기획 건설이 마무리된 날로부터 7년 동안 토지임대료가 면세되며, 운영을 시작한 후 과세 소득이 있는 때로부터 2년간은 기업소득세가 면세되고, 이어 4년간은 납부 세액의 50%가 감세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전함
- 그 밖에, 이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베트남인 및 외국인도 개인소득세의 50%를 감세 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함
- 회의 자리에서, 팡닌 성은 앞으로 기획의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재정 기구와 투자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조사, 연구하는 조직을 설립할 것이라고 전함
- 9월 안으로 양측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며, 사업 진행에서 예상되는 결점들을 타개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할 문제점들을 제시하게 될 것임
- 한편, ISC 측은 하롱(Ha Long) 시 뚜언쩌우 섬에 복합 유원지 기획 투자 계획을 연구 수립하기 위해 뚜언쩌우 기업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 기획의 총 투자 자금은 75억 달러이다. 하지만, 팡닌 성 투자 지원 및 진흥 위원회 지도부에 따르면, 이 "엄청난" 투자자금은 보고에 근거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투자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 지도부와 투자자들이 필히 더 연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 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뚜언쩌우, ISC 기업, City Bank 간에 뚜언쩌우 섬 70헥타르 규모의 유원지와 마리나 센터(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유한책임회사를 합작 설립함





- 베트남 정부가 현재 카지노 운영을 합법화함에 따라, 번돈 경제지구는 항공-항해 서비스, 국제금융은행 지구, 비관세 영역, 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유치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뜨거운 곳' 중의 하나로 공항과 카지노 개발에 각각 10억, 40억 달러의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계획투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팡닌 성은 외국투자자본 계획이 104개가 있으며, 총 등록 투자 자본은 43억 달러로 전국 63개 성도시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 앞으로, 팡닌 성은 아마타(Amata, 태국) 기업과 제 1 단계 총 투자자금 15~20억 달러 규모의 첨단산업 기술단지, 신도시 계획을 위해 협력할 예정임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9.24

## 동나이에서 시세이도 두 번째 공장 건설

- 지난주 베트남 시세이도 유한책임 회사(아마타 공단, 동나이 비엔화)는 3천만 불 투자자금으로 두 번째 공장을 착공하였다. 투자자금에는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시설 수입, 기계 투자, 생산라인 확대까지 포함됨
  - 예 정대로라면 2015년에 공장이 완공되며 첫 번째 공장에 비해 3배의 생산량을 갖고 있음
  - 동나이 공단 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시세이도 회사의 생산 확대는 일본 기업에게 베트남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함
  - 베트남 시세이도 유한책임회사는 100% 외국인 투자 자본으로 설립된 일본 투자기업이다. 머리 염색약, 로션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2008년 첫 번째 공장을 위해 약 5천만 불을 투자하였고, 아시아 11국에 수출을 하고 있음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9.24

## 외국 인테리어 가구 기업들 대규모로 베트남 시장 점유해

- 베트남 인테리어 가구시장은 나날이 수많은 전시장(showroom)과 함께 미국, 태국, 한국, 스웨덴 등 유명 외국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시장은



##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

○ 스웨덴 인테리어 기업 UMA 는 푸년(Phu Nhuan) 군에 700m<sup>2</sup> 면적의 매장을 추가로 개장하였는데, 오는 23 일에는 빈즈엉(Binh Duong)성 이안(Di An)에 추가로 한 개 매장을 더 오픈할 예정이다. 현재 인테리어 매장 개수 순위로 9 위이다. UMA 기업은 매년 2 개 매장을 확장하고, 주거지역에 소규모 매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오거스트 윙가드(August Wingardh) UMA 회장은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은 하락하였지만 중산층에서 안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투자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많음

○ 베트남에서 소파 세트 가격이 200 만~2000 만 동까지 다양한 걸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고 설명함

○ 현재, 베트남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 인테리어 매장에 들러 구매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하지만 가격, 품질, 서비스에 있어서 수많은 매장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점차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UMA 는 스웨덴의 설계와 품질 표준에 따라 베트남에서 가구를 생산하고 있다. UMA 는 스웨덴과 베트남 투자자들이 각각 50%씩 투자하여 현지 회사가 설립됨

○ 지난 8 월 초, 토드 와네첵(Todd Waneck) 아셜레이(Ashley) 인테리어 회사 회장은 빈즈엉 성에 추가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함

○ 이 미국 인테리어 기업과 협력하게 될 베트남 기업은 지난 7 월 말 미국에서 총 투자 가치 1000 만 달러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힘

○ 계획에 따르면, 아셜레이 상품 유통센터는 2014 년 초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며, 북쪽에서 남쪽까지 홈 스토어(home store) 상점들로 구성할 것이며 매장 내에 전시장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셜레이 가구 산업은 현재 하노이 롱비엔(Long Bien)에 인테리어 가구 제조 공장과 본점이 있음

○ 빈즈엉 성에 설립될 공장은 2015 년에 완공되어 활동에 들어갈 것이며 4,000~1 만명의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획은 아셜레이 기업이 중국 공장을 축소시키는 계획과 맞물려 있음

○ 태국 투자자들 또한 호찌민시에서 매장들을 계속해서 확장 설립함으로써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 2011년 12월 말, 인텍스 인터펀(Index Interfun) 태국 인테리어 기업은 호찌민시에 7,000m<sup>2</sup> 규모의 인텍스 리빙 몰(Index Living Mall)을 처음으로 개장함. 현재, 인텍스 리빙은 호찌민시 2, 3, 5 군에 쇼룸을 추가로 개장한 상태임
- 인텍스 리빙 몰 베트남 대표는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계획하던 5년 전, 자사는 중류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고객들을 목표로 시장을 조사하였다고 밝힘
- 인텍스 리빙은 계절에 따라 기호, 취미가 변하는 다양한 가정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으며 상품 가격도 몇 백 만동에서 수 천 만동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개장 계획이 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임
- 태국 인테리어 매장은 가전제품, 장식품, 가정용품, 가구... 등 10만 개 이상의 상품들을 갖고 매일 500~1,000 명의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인텍스 리빙 몰은 가구 매장에서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완 스톱 쇼핑 몰(one-stop shopping mall) 개념임
- 미국, 스웨덴, 태국 인테리어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발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외국 투자자본 100%의 킴스풀하우스(Kimsfullhouse)는 2007년 1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함
- 이는 한국 브랜드들의 고급 인테리어 가구들을 독점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기업이다. 킴스풀하우스는 현재 하노이와 호찌민시 백화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진열하는 6개의 쇼룸이 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스타일 변화를 항상 추구하는 상류층을 목표 고객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한경제 전문가는 베트남에 많은 외국계 인테리어 가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은 인테리어 가구 시장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도와줄 것으로 내다 봄
-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여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올수록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시장 점유율 또한 낮아지게 될 것임
- 베트남 기업들이 적절하고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레이스' 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함

\* 출처: vnknewspaper.com, 09.22



## ◆ 베트남기업 동향

### 베트남항공, 내달 28일부터 한국노선 항공편 증편

- 베트남 국적항공사 베트남항공(VNA)이 내달말부터 한국노선 항공편을 대폭 증편 운항함
- VNA는 오는 10월 28일부터 호찌민~인천 노선과 하노이~부산 노선에 매주 각각 4편과 5편을 추가 투입, 운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
- 베트남 항공업체 가운데 인천, 부산노선에 취항하는 유일한 항공사인 VNA는 현재 이들 노선에서 주 7회 운항하고 있음
- 이들 노선에는 에어버스 320, 321, 330 기종이 쓰이고 있음. VNA는 특히 호찌민~인천노선의 경우 내년 3월까지 한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판촉가격을 적용한다고 베트남소리방송(VOV) 등이 전함
- VNA는 실제 출발하기 14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약하는 고객에 대해 36%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출처: yonhapnews, 09.22

### 한국 취항 추진 베트남 비엣젯, 항공기 62대 구매 에어버스 측과 61억 달러 규모 MOU 체결...공세 행보 '눈길'

- 한국노선 취항을 추진중인 베트남의 저가항공사 비엣젯이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로부터 A320 등 항공기 62대를 구매기로 하는 등 사세를 대폭 확장함
- 경제전문지 베트남인베스트먼트리뷰(VIR) 등은 26일 루독 카잉 비엣젯 사장이 전날 파리에서 에어버스 측과 항공기 구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 MOU 체결식에는 장 마르크 에로 프랑스 총리와 응웬 쩐 중 베트남 총리가 참석했다. 카잉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측의 MOU 체결에 따른 첫 항공기 인도가 내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거의 1년에 10대꼴로 도입하는 셈이라고 말함



## 대한상공회의소

- 도입 기종은 기존에 보유중인 단일통로(Single Isle)식 A320 14 대와 오는 2015 년 선보이는 A320 Neo 42 대, 동체가 큰 220 인승 짜리 A321 기종 6 대인 것으로 파악됨
- 이들 항공기의 구매대금은 무려 61 억 달러(6 조 5 천 666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비엣젯은 아울러 제 3 자로부터 A320 기종 8 대를 임대키로 하는 한편 30 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 행사 근거도 마련함
- 지난 2011 년말 출범한 비엣젯은 베트남의 첫 민간 항공사로 11 개 국내 도시와 태국 방콕을 취항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부쩍 공격적인 경영으로 사세를 확장, 올 연말 베트남 항공시장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 비엣젯은 최근들어 한국노선에 처음으로 추석 전세기를 띄우는 등 한국 노선 취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카잉 비엣젯 사장은 올 연말 한국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이어 대만과 일본 등으로 운항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들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첫 저가 항공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함
- 이에 앞서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9 월 항공회담에서 복수의 항공사 취항이 가능토록 하는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비엣젯의 한국노선 취항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상황임

\* 출처: yonhapnews, 09.26

### PVFC 와 Western Bank, PVcomBank 로 합병 통합

- 지난 8 일, 페트로베트남금융회사(PVFC)와 웨스턴뱅크(Western Bank)는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양 금융사가 합병되는 안을 가결함
- 베트남대중상업은행(Vietnam Public Bank, 줄여서 PVcomBank)이라 불리는 통합 은행은 첫 통합 시 100 조 동의 자산 규모를 가지며, 2013 년과 2014 년 2 년간 9 조 동의 공인 자본이 유치되며, 2015 년경에는 지속적인 발전과 최적의 자본 적정성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 12 조 동으로 증가시켜 나갈 예정임
- PVcomBank 는 개인 자본 동원, 결제서비스, 소매금융서비스, 핵심 기획들을 위한 투자 자본 마련 등 상업은행의 서비스와 상품들을 공급할 것임



○ PVcomBank의 활동조직망은 기존에 갖고 있던 PVFC와 WesternBank의 거래점, 지점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전국 각 성도시 중심지에 102곳의 거래지점(1개 본점, 30개 지점, 67개 거래점, 4개 저축 기금(펀드))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임

○ 최근에 중앙은행은 3개의 상업은행 간 합병을 승인하였는데, 첫 번째 기획은 SCB, TinNghiaBank, Ficombank 3개 은행이 SCB 은행으로 합병된 것이다. 두 번째 합병은 2012년 8월 SaiGon-Hanoi 상업은행과 HabuBank 간 합병하여 SHB 은행으로 통합된 것인데, 총 9조 동 의 공인 자본과 총 120조 동 의 자산과 함께 완료됨

○ 중앙은행은 또한 호찌민시발전은행(HDBank)과 위대한아시아상업은행(Dai A Bank) 사이의 합병을 승인하였다. 곧 두 은행은 합병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09.24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하노이시 끼우저이에 '정보기술 특구' 지정 다양한 혜택

○ 하노이에 지정된 'IT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면세, 토지 임대료 지원 혜택등을 누리게 되어 해외 파트너와 거래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호찌민시 12區 소재 팡쑹(Quang Trung) 소프트웨어 파크(QTSC)와 중부 다낭市的 다낭 소프트웨어 파크에 이어 국내 3번째로 지정한 'IT 산업 단지'로 하노이시 '끼우저이 정보 기술 특구'를 인정함

○ 베트남 정부는 정보기술 개발과 관련된 특별법 01/2013/GCN-BTTTT 을 인증하여 하노이시 IT 특구에 대한 우대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됨

○ IT 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기업들은 세금과 토지 임대료 감면 등 하이테크 파크에 적용되는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됨

○ 끼우저이 정보기술 공업 단지는 2001년에 끼우저이(Cau Giay)區 덕봉(Dich Vong) 지구에 약 8.35헥타의 부지에 약 36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됨



○ 그 중 약 29 개 기업은 연구/개발/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으로 베트남 최대 통신회사 Viettel, FPT 와 Hai Hoa, Elcom, Misa...,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 신청을 마쳐 현재까지 약 61.66%가 분양 완료되었다고 밝힘

\* 출처: vnexpress.net, 09.19

### 베트남, 신용카드 시장 성장 가능성 무한

○ 지난 9/19 일 다낭에서 개최된 마스터 고객 컨퍼런스에서 아세안 지역 책임자 Matthew Driver 씨는 '베트남에서 약 90%가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신용카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함

○ 마스터 카드사는 베트남에서 지난 몇 년간 카드 발행은 약 50% 이상, 거래 금액은 약 40% 이상씩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신용카드 시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에게 직원들의 급여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또한, 베트남 정부와 함께 신용 카드에 대한 효과 및 혜택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사 및 호텔과 연계한 제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용 카드 사용을 장려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출처: thanhnie.com, 09.20

### 빈펄-하이장 관광지 프로젝트 착공

○ 지난 15 일, 꾸년(Quy Nhon)시, 빈딘(Binh Dinh)성 인민위원회, 빈그룹(VinGroup), 년호이(Nhon Hoi) 경제지구 관리위원회, 하이장(Hai Giang) 관광주식회사는 총 투자자금 약 35 조 동 규모의 빈펄(Vinpearl)-하이장(Hai Giang) 관광지 기획 착공식을 개최함

○ 빈펄 하이장 관광지는 656 헥타르 면적에 건설된다. 이중, 60m 이하 고도에서 기획되는 건설면적은 약 260 헥타르이며, 해수면 및 해양에서는 91 헥타르, 그리고 60m 이상 고도에서 개발되는 숲, 풍경 등의 면적은 305 헥타르 이상임





- 육지에서 관광지까지 잇는 케이블카; 호텔 및 리조트; 유원지와 해변; 회의장, 세미나 공간, 민간 문화축제 장소와 18 홀 규모의 골프장(제 1 단계), 36 홀 규모의 골프장(제 2 단계) 등이 건설될 예정인 이 기획은 2017 년에 완공되어 운영될 예정임
- 레각힙(Le Khac Hiep) 빈그룹 이사회 부회장은 빈필-하이장 관광지 투자건설은 빈딘 성의 핵심 분야인 관광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남중부 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함

\* 출처: vnknewspaper.com, 09.22

###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려면 반드시 각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허락 받아야 해

- 응웬뎐중(Nguyen Tan Dung) 정부 총리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 노동자들에 관한 노동법의 몇 가지 조항을 시행하는 자세한 규정 의정서 제 102/2013/Nđ 호를 서명 발행함
- 의정서는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증(work permit) 발급에 관해 노동법을 시행하는 자세한 규정으로 베트남에 들어와 근무하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이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추방한다고 규정함
- 의정서에 따르면,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근무 영역이 확립되었다. 사업주(고용주)는 베트남 노동자들로는 업무 능력이 충분치 않은 분야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으며, 매년 중앙 정부에 속한 각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
-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수요 변화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각 업무 위치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받기 위해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만 함
- 의정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허가증 발행에 대한 규정, 노동허가증 재발급에 대한 규정, 노동허가증 철회에 대한 규정, 외국인 노동자 추방에 대한 내용 또한 자세히 규정함
- 의정서는 2013 년 1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채용에 관한 의정서 제 34/2008/Nđ 호; 의정서 제 34/2008/Nđ 호의 몇





## **대한상공회의소**

가지 조항을 수정보충한 의정서 제 46/2011/Nđ 호는 위 의정서가 효력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종료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9.24